

광주시·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육성 전국 최고 역량 뽐내다

2년 연속 중기부 평가 A등급...국비 17억8000만원 추가 확보 기술개발·사업화·마케팅 지원...신규고용 306명·매출 806억 에스오에스랩·브이산업 우수사례 선정...벤처마킹자료 활용

광주시가 지역산업 육성사업 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중소 기업 지원 역량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지역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A)을 받아 특전(인센티브)으로 국비 17억8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고 6일 밝혔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지역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 등 지역 혁신기관과 협력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국비 142억원, 시비 58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해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스

마트용 부품, 생체의료소재부품 등 주력 산업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역량 강화·마케팅 등을 지원했다. 시는 이 같은 지원 정책으로 신규 고용 306명, 사업화 매출액 806억원 등 성과를 창출했으며, 이는 목표 대비 신규 고용 120%, 사업화 매출액 138%를 달성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지역 산업·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결과물로 평가했으며, 특히 지난해 핵심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표적 장애요인으로 꼽혔던 대우위니아그룹 발 지역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도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광주시의 지역특화산업육

성사업 우수 성공사례로 ㈜에스오에스랩과 브이산업을 선정하고, 지역 기업·기관(기업지원) 벤치마킹 자료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시가 기획한 성장사다리 지원으로 2016년 학생창업기업에서 올 6월 라이다분야 첫 코스닥에 상장한 ㈜에스오에스랩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전문 개발·제작기업으로 고용 증가율 28%, 2023년 매출증가율 75%를 기록했다. 또 비연구개발 지원으로 176억원의 높은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광주시는 설명이다. 브이산업은 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매출액이 급감한 위기기업(2019년)에서 기업 역사상 최대 매출액 달성기업(2023년)으로 전환해 연구개발(R&D) 지원에 따른 우수사례로 선발됐다. 이 기업은 지난해 매출증가율 14%, 고용증가율 34%를 달성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지자체와 테크노파크, 지역 연구기관, 지역기업이 한마음으로 협력·추진해 얻은 성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산업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메가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일시 | 2024. 8. 6.(화) 10:00 장소 | 전남도청 서재필실



탄소포집활용 메가프로젝트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여주시, GS칼텍스와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확보를 위한 '탄소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탄소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는 CO2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CCU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하여 CCU 기술의 실비를 구축하고 실증 R&D를 추진하는 정부 대형 프로젝트다. <전남도 제공>

'양궁 전 종목 석권 신화' 파리 이어 광주서 재현한다

광주시, 내년 9월 세계선수권 개최 선수지원·교통·보건위생 등 준비

광주시가 내년 9월에 열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공사들의 이룬 '전 종목 석권'을 내년 광주에서도 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9월 광주에서는 세계 양궁 3대 빅이벤트인 ▲세계양궁연맹총회(9월 2-3일) ▲세계양궁선수권대회(9월 5-12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9월 22-28일)를 잇따라 열린다. 광주시는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슬로건을 '평화의 울림'으로 정했다.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 평화에 기

여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상징하기 위해 대회 결승전은 5·18민주광장에서 열리게 된다. 특히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 도시에 걸맞게 전쟁·내전 등으로 대회 출전이 어려운 국가의 선수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의 선진 양궁 기술을 전수하고 대회기간 분쟁을 중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구상 중이다. 또한, 대회 성공 개최와 '파리올림픽 양궁 전 종목 석권 신화'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다채로운 이벤트도 열 계획이다. 대한양궁협회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회 홍보대사 위촉 ▲대회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또 대회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 개최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구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와 참가 선수단 지원 등도 마련한다.

광주시는 대회 기간 광주시 직원을 인천국제공항 안내 데스크에 상주시켜 선수단의 출입국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관리와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관리와 숙박시설 위생관리, 식품 안전성 검사 등 보건위생 분야도 꼼꼼하게 챙긴다는 계획이다. 대회 기간 중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경기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결한 광주 만들기 운동과 함께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운영해 원활한 경기 진행을 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광주는 양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다수 배출한 국제 양궁 중심도시"라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내년 9월 광주에서도 파리올림픽처럼 대한민국 공사들이 전 종목을 석권할 수 있도록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서울 동행상회서 전남 수산물 팝업스토어 운영

전남도, 31일까지...30% 할인

전남도가 서울 동행상회에서 전남산 우수 수산물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수산물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서울동행상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설 판매장이다. 서울시민에게 전국 우수 농수특산물을 소개하고, 지역 농·어에게 판로를 지원해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공간이다. 전남도는 이번 서울 동행상회에서 '감동의 힐링푸드 전남 수산물'이란 슬로건으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전복 어묵, 순살 전복, 저염식수제 김부각 등 새롭게 개발한 23종의 수산물 가공제품 등을 최대 30%의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오는 12일 오전 11시부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서울동행상회'에서 실시간 온라인 방송 판매

를 진행, 손질 전복과 슬라이스 전복을 소개하는 등 소비자들과 생산자 간 직거래 유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정 전남 수산물이 서울시민에게 신뢰를 얻어 고령 소비층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어가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소비처를 발굴하는 등 어촌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10억원을 투입, 어가에 가공·유통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6000세대를 대상으로 수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등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섬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28억원 투입...모든 주민 대상

전남도가 육지보다 비싼 택배 요금에 부과되는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 추진했던 섬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연중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2배 많은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섬 지역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시범 추진해 주민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부터 사업을 연중 지원하고, 지

방비도 추가 투입해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23년에는 6개 시·군, 3075명의 섬 주민에게 25만여 건, 5억2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또 연령제한을 폐지해 모든 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택배 한 건당 지원 한도를 삭제해 추가 부담한 금액을 실비로 지원한다. 섬 주민이 본인 명의로 택배를 이용(수·발신)하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미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섬 지역 추가 배송비 연중 지원을 통해 생활 여건이 어려운 섬 주민이 택배만큼은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섬 주민의 더 나은 정주 여건과 불편함 개선을 위해 주민과 현장 소통을 확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섬 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광역단체 전국 최초 천원 여객선 운영, 생활필수품 물류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창업기업 제품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

광주시는 6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창업기업 제품 실증 지원사업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홍보 서포터즈 '광채단(광주 창업기업 제품 실증 지원사업 체험단)'은 5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유튜브 등에 카드뉴스·짧은 영상(쇼츠) 등 콘텐츠를 촬영·제작하고 취재 후기를 선보인다. 광주시는 도시 전체를 실증 시험 무대(테스트베드)로 내어주고 기업이 개발한 초기 제품을 검증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6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4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상반기에 33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제품은 숙면 유도 테라피 제품 수면케어 캡슐·인공지능 시스템 기반 도로 상태 정보 플랫폼·사물인터넷 기반 냉각기기 효율 향상 시스템·친환경 살균수처리 물류 포그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40724-중-173103호

상무지구 BYC사거리 진료문의 | 062-381-3900

이제 광주스마일안과의원에서 시력을 개선하세요!

-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 풍부한 임상경험의 조용윤원장
-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과



광주 스마일 안과
Smile Eye Clinic

스마일수술/라식/라섹
드림렌즈 / 노안라식
www.smile-eye.co.kr